

# 張衡 賦와 《莊子》

金松姬\*

## <목 차>

1. 序 言
2. 張衡의 讖緯觀念에 대한 批評
3. 《莊子》와 張衡의 個性意識
4. 《莊子》가 張衡의 賦 創作에 미친 影響
5. 結 言

## 1. 序 言

兩漢시기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儒學은 王權의 중시를 받았으며, 經學 역시 함께 극성을 이루었다. 漢 武帝 때, “百家를 배척하고, 儒學만이 홀로 존귀하다”<sup>1)</sup>라고 한 후, 士人들은 儒敎이외의 모든 思想을 排斥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經學은 다만 儒學의 正統性만을 強調할 뿐, 人性을 束縛하였고, 동시에 思考할 수 있는 창의력마저 속박하게 되었다.

漢代에 儒學과 經學이 극성을 이루긴 했지만, 일부 문인들은 이러한 정통 관념의 속박을 뛰어 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시각은 차츰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의 인생에 대한 관점으로 바뀌어 나갔고,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곧 老莊思想에 대한 趣向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1) “罷黜百家, 獨尊儒術”

莊子の學說은 사람의 自我가 사회의 규범이나 제도의 영향을 받아 정형화되어 있는 사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이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逍遙의 境界에 到達하며, 精神的 解放과 自由를 얻도록 圖謀하는 것이다.

따라서 莊子の 현실에 대해 초월하려는 思想은, 張衡이 漢代의 철저한 儒敎 지배적인 정신세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자세와 서로 부합되었던 것이다.

東漢시대의 士大夫였던 張衡(78-139)은, 科學者이면서 동시에 文人이었다. 그는 천문학 관찰을 통해 천문학 이론을 제시 하였고, 정치 활동에 참여 하여 민간인의 풍속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폈으며, 동시에 문인으로서의 위치 또한 확고히 다졌다고 할 것이다.

《東京賦》의 “爲無爲”, 《思玄賦》·《歸田賦》의 人生無常, 《髑髏賦》의 生死如一에 대한 개념, 《靈憲》의 “道”에 대한 묘사, 우주의 “無極無窮”하다고 한 표현은, 모두 《莊子》 사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莊子는 직접적으로 文學과 美學思想, 文藝理論을 거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張衡은 《莊子》 思維 方式을 받아들여 “詩敎”의 束縛을 뛰어넘기 시작하였고, 작품의 抒情性을 強化시켰으며, 魏晉人의 文學創作이 創造的 思考와 探索을 實踐해 나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와 같은 《莊子》와 張衡 賦의 상관성을 探索하기 위해서 《莊子》와 張衡 賦에 묘사된 내용 및 어휘들을 대응시켜 분석해나갈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분석 과정 중에서, 張衡 賦가 儒家의 기초 위에서 그것의 한계성과 당시 성행하였던 讖緯說의 非科學的 태도를 《莊子》의 思惟 方式으로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한 논지 전개는, 학술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부여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상술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張衡의 讖緯說에 대한 批評을 살펴보고,

둘째, 張衡 賦와 《莊子》가 서로 부합되는 個性意識은 무엇인지를 探索하고,

셋째, 張衡 賦에 나타나는 《莊子》의 思想, 文學的 요소 및 審美觀을 探索하여, 張衡 자신이 어떻게 문학의 구조적인 전환을 추구해 나갔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 2. 張衡의 讖緯觀念에 대한 批評

讖緯說은 西漢이래 陰陽五行·天人感應·天人合一 思維 方式의 변형 이며, 동시에 漢代 迷信 思想의 또 다른 한 표현이었다. 그것의 핵심은 王權을 神化하고, 神、自然과 사람을 一體로 융합시켜, 황당한 政治 神話를 造成시키는 것이다.

東漢시대부터, 光武帝가 천하에 圖讖을 선포함에 따라서, 정치노선이 神秘主義的 傾向으로 흘러갔고, 圖讖은 至高한 神聖의 地位를 누릴 수가 있었다. 東漢 中後期에는, 讖緯說이 經學의 정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타당한 근거도 없이 억측으로 만들어진 정치신화는 정치권의 허가를 받아 하나의 진리처럼 변해버렸다. 讖緯說은 儒家중의 한 유파로서, 당시의 많은 경학자들은 참위설을 함께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이론을 전개시켜 나갔다. 이러한 정치 환경 하에서 士人, 文人들의 人性은 알게 모르게 억압받게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사실상, 讖緯說의 핵심 내용은 군주의 仁政이 하늘에 感應되어 나타난다는 상서로운 조짐을 나타내는 사상이다. 董仲舒의 《天人三策》 중에서도 이에 관한 내용은 잘 설명하고 있다.<sup>2)</sup> 참위설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어떤 객관적 관점이 없어서, 東漢時期的 사상가인 王充·張衡·桓譚이 모두 참위설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張衡 역시 讖緯說에 대한 비평을 가하는 중에, 科學的인 觀點으로부터 天文에 관한 각종 問題를 提示하여 나갔다.

東漢中期, 讖緯思想의 背景 下에서, 많은 漢 賦家들의 “虛夸”한 手法을 이용하여 역사적으로나 과학적 근거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상을 君主의 神聖化를 위하여 펼쳐나갔다. 그러나 張衡 賦의 상상은 科學的 精神에 의거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靈憲》에서는 우주가 무한한 것으로 보고 “宇의 표면은 끝이 없고, 宙의 끝은 무궁하여라”<sup>3)</sup> 라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우주에 대한 상상력은 莊子의 과학적 정신과 일치한다. “아지랑이와 티끌은 생물들이 불어내는 입김이다. 하늘이 저렇게

2) “臣聞天之所大奉使之王者, 必有非人力所能致而自至者, 此受命之符也. 天下之人同心歸之, 若歸父母, 故天瑞應誠而至。”

3) “宇之表無極, 宙之端無窮”

저 위에서 이 지상을 굽어보아도 또한 이렇 뿐이다.”<sup>4)</sup> 라고 한 것은 지구로부터 하늘을 보거나,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이나, 그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라는 것으로, 아직은 과학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던 시대의 莊子의 이러한 상상은 이 시대의 科學的 논증으로서도 틀림이 없다.

많은 兩漢時代의 文人들이 讖緯說의 사상을 批評해가는 과정 중에서, “虛夸”하는 手法을 排斥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傾向은 바로 史學傳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다. 가령, 班固가 《史記》에서 “문장은 직설적이어야 하고, 사건의 핵심을 지적해야하며, 헛되이 미화시키지 않아야 하며, 잘못된 것을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것을 實錄이라고 한다.”<sup>5)</sup>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군주, 제왕이란 개념은 이미 절대적 권위를 이루었다. 讖緯說의 이러한 신학 경향은 단지 古文經學과 다를 뿐만 아니라, 今文經學의 세속화하는 학술 품격과도 또한 서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讖緯說의 정치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讖緯說과 經學의 모순은 첨예해지고 있었는데, 통치자는 자신의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량의 讖緯書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혹독한 사회현실 앞에서, 통치자가 三剛五常 등의 봉건윤리도덕의 교육을 강화시킨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에 나타나는 양상과 儒家가 말하는 윤리사이에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모순들을 느끼고 있었다.

張衡의 《二京賦》에서는 그 당시 統治階級의 지나치게 사치하는 현상을 냉철하게 지적하여 쓴 것이다. 그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讖緯說만을 헛되이 믿고, 삶 안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진실, 가령 生老病死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君主의 어리석음을 批評하였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다. 張衡의 觀點으로는, 經學이 지나치게 現實的이고 正統的이며 論理的이어서, 사람들의 자연스런 人性과 思考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서 정신적 갈등을 느끼게 하였다면, 讖緯說은 지나치게 非現實的이고 非科學的이어서 사람의 정신을 夢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實用的인 면과도

4) 《莊子·逍遙遊》：“野馬也，塵埃也，生物之以息相吹也。天之蒼蒼，其正色邪？其遠而無所至極邪？其視下也，亦若是則已矣。”

5) 《漢書·司馬遷傳》：“其文直，其事核，不虛美，不隱惡，故謂之實錄”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것이다. 따라서 張衡은 경학과 참위실 두 가지가 던져주는 답답함과 精神的 矛盾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思想, 즉 老莊思想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3. 《莊子》와 張衡의 個性意識

漢初 黃老思想은 당시 백성의 내면적이고도 정신적인 요구에 맞추어 秦代의 가혹한 법과 오랜 독재정치와 장기적인 전란을 겪은 백성들에게 일종의 심리적인 위안을 주었다. 西漢初, 황로사상은 先秦시대의 道家보다 훨씬 체계적인 ‘道’論을 펼쳐나갔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 黃老思想 자체를 완성시켜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안으로는 法術을 사용하면서 겉으로만 儒術로서 자기들의 행정을 꾸미는 지경에 이르렀고, 정치현상이나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에는 道家的인 신비주의적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sup>6)</sup> 漢 武帝 때에는, “百家를 배척하고, 儒學만이 홀로 존귀하다”라고 하였으며, 董仲舒는 《天人三策》에서 “道の 큰 원리는 하늘에서 나온다. 하늘이 변치 않으면 道 역시 변치 않는다.”<sup>7)</sup> 라고 하여, 그는 군주가 하늘로부터 天命을 받아 통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교의 경전을 강의하는 五經博士라는 벼슬이 만들어져, 太學에서는 儒學의 연구가 성하게 되었다. 士人들은 經典에 대해서만 해석을 하고 정통성을 강조할 뿐, 기타의 사상은 모두 배척을 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사람들에게 어떤 정형화되어있는 틀을 강조해나가게 되고, 동시에 자연스런 인간의 사고를 펼쳐나가기 어렵게 만들었다.

東漢 中·後期, 이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른 한편에서는, 太學生과 士인들이 群體化 하면서 清議가 발생하고 佛敎와 老莊思想이 차츰 유행하였다. 이 때, 많

2) 김학주 저, 《漢代의 문인과 시》, 신아사, 1999년, p.54

7) “道之大原出於天, 天不變道亦不變”

은 문인들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個人的인 영역으로 관심을 전환시켜 나가고, 특히 《莊子》의 영향으로 인해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사람의 內在의 精神·人格·個性·生命意識 등으로 차츰 그 관심을 전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張衡의 사상 대부분이 儒學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활약했던 安帝(107-125재위)로부터 順帝(126-144)에 이르는 기간이란 東漢의 中興이 다시 내리막길로 들어서서 봉건정치의 모순이 여러 가지로 노골화하였던 때였다. 대체로 和帝의 永元 元年(89)부터 漢나라 조정은 外戚과 宦官의 피비린내 나는 정권 쟁탈자로 변한다.<sup>8)</sup> 이 때, 張衡은 그 당시의 정치의 부패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염증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속된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의 정서나 취향은 서서히 老莊思想으로 기우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항상 조용하고 담담하여서 속된 사람을 사귀기를 좋아하지 않았다”<sup>9)</sup> 라고 한 구절이 곧 그것이다.

成女英의 《莊子書》 중에서 莊子는 “만백성의 業報를 개탄하고, 道德의 쇠퇴함을 아파하며, 이른바 발분하여 이 논저를 지었다.”<sup>10)</sup> 고 말한 것과 같이, 莊子의 人生哲學의 요지는 이 피로운 인생의 허덕임 속에서 어떻게 빠져 나올 것인가의 문제이며, 根本的인 自由를 또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의 문제였다. 莊子의 自由觀은 宗法이나 專制의 사회에 대한 “覺醒한 사람”들 간의 모순과 충돌로부터 시작된다. 莊子가 깊이 있게 말하고 있는 핵심은 “人”의 문제였다. 인간이 존재하는데 그 기초를 이루는 形(몸)神(마음)에 대한 문제는 결국 人格意識과 精神的 自由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莊子 哲學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가 말하는 最高 人格境界의 美는 “天人合一”이다. 儒、道家가 모두 “天人合一”을 말하고는 있다. 그러나 儒家가 말하는 “天人合一”이 사회적 이성을 배양해내

8) 김학주 저, 《한대의 문인과 시》, p.83

9) 《後漢書》卷五十九, 《張衡傳》: “常從容淡靜, 不好接交俗人” 이러한 성향의 배경으로는 그가 전형적인 사족집안에서 태어나 오경과 육예에 통달하여 박학하고, 문재에 뛰어난 학자였던 점도 함께 고려할 수가 있겠다.(《後漢書·張衡傳》: “張衡.....世爲著姓, 祖父堪, 蜀郡太守。衡少善屬文, 游於三輔, 因入京師, 觀太學。遂通五經, 貫六藝。”)

10) “嘆蒼生之業薄, 傷道德之凌易, 乃慷慨發憤, 爰著斯論。”

고, 사람의 정감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道家가 이야기하는 “天人合一”이란 곧 人性을 解放시키고 自由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莊子가 말하는 최고의 이상적 인격이란 “聖人”·“神人”·“至人”의 人格境界에 이르는 것이며, 그들은 세속적 是非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生死觀念을 초월하며, 삶 안에서의 사사로운 일들에 대해 집착하지 않으며, 온전히 天地精神과 一致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안의 일들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일에 빠져들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순리에 맡겨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즉 “無名”·“無功”·“無己”라고 하여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莊子가 말하는 理想의 人格境界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天人合一”은 儒家 孟子가 말하는 “盡心知性知天”의 논리와는 부합되지 않으며, “人爲”의인 思維 方式과도 완전히 다르다. 莊子는 外在的 환경, 조건, 관념, 제도에 지배를 받지 않고, 人生을 逍遙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정신은 사망으로 통하고 팔방으로 흘러가 이르지 않는 데가 없다”<sup>11)</sup> 라고 한 것이 그 예가 된다고 할 것이다.

東漢 中 後期에, 《莊子》는 확실히 《老子》처럼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니었다.<sup>12)</sup> 그러나, 《莊子》의 영향으로, 많은 文人들의 관심 영역이 政治에서 個人으로 바뀌어 지고 있었고, 사람의 內在의 精神, 즉 個性意識에 관심을 나타내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張衡의 《思玄賦》는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빠져나와, 理想을 찾아나갈 수 있는 情景에 편중되어 쓴 것이다. 그러나 幻想이란 언제나 무거운 現實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기에 儒教經傳에 의탁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옛 聖賢들을 본받고자 하는 그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奸邪하고 바르지 않은 일을 하였지만 뜻을 얻고, 法度에 따랐지만 禍를 만났다.”고 하여 정치적 현실의 암울함을 토로하기도 하였고, “無爲함으로써 뜻을 모으고, 仁義와 더불어 逍遙하노라”<sup>13)</sup> 라고 하여, 현실 그 자

11) 《莊子·刻意》: “精神四達並流, 無所無及”

12) 參見錢宗頤 《戰國西漢的莊學》, 選自《選堂集林·史林》, 中華書局 香港分局, 1982년

13) 《思玄賦》: “行跛僻而獲志兮, 循法度而離殃, “墨無爲而擬志兮, 與仁義乎逍遙”, 參見費振剛輯校, 《全漢賦》, 選自《後漢書·張衡傳》所錄爲底本, 以《文選》李善本、君臣本、六臣本爲校本.

체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것을 통해, 張衡이 말하는 정신세계는 여전히 사회 안에서의 道德的 規範과 行爲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莊子가 말하는 人性을 解放하고 自由를 얻음으로서 天人合一에 이르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漢代 封建社會는 관직을 숭상하는 시대로, 文人들은 대부분 官職에서 理想을 實現하려고 하였지만, 希望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넷가에서 물고기를 부러워하고, 푸른 물을 기다리지만 기약이 없노라”<sup>14)</sup> 라고 한 것은, 물고기의 속성이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는 것인 만큼, 그 자유로움을 갈망함과 동시에, 그 당시의 정치사회가 깨끗해지길 바라지만, 희망은 보이질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張衡은 당시 사회로부터 장기적으로 精神的인 압박감을 느낀 후, 個性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그 나름대로의 정신적 쉼터와 휴식처를 철저히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찾게 된 것이 自然이란 공간이었으며, 그런 안에서 유유자적하며 노닐 수 있는 자유로움에 대한 갈구는 상당하였다. 부득불 세속 이외의 대자연 중에 정신적 해탈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 방법의 하나가 곧 “몸은 江이나 바닷가에 있으면서 마음은 魏나라 궁중에 있으니”<sup>15)</sup> 와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張衡이 晩年에 썼던 《歸田賦》에서는 “세속을 초월하여 떠나가고, 세상과 고별하려니”라고 하여 전원으로 돌아가 은거하는 생활에 대한 갈구를 표출하였다. 이어서 “중춘 2월 아름다운 계절에, 시기적으로 온화하고 날씨도 청명한데;.....이리 하여 소요하며 잠시 마음을 편안히 하네.”<sup>16)</sup> 라고 경치를 묘사하는 과정 중에 사람

14) 《歸田賦》：“徒臨川以羨魚，俟河清乎未期”，參見費振剛 胡雙寶輯校《全漢賦》，選自 蕭統《文選》，李周翰說：“衡游京師，四十不仕。順帝時，闡官用事，欲歸田里，故作是賦。” 일반적으로 張衡의 《歸田賦》는 그의 晩年의 작품이라고 말한다. 張衡이 생활하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암울하였고, 환관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따라서 東漢王朝는 날로 쇠퇴해졌는데, 이러한 정치적 환경은 그로 하여금 위국 위민할 직책을 이행하기가 어렵게 했다.

15) 《莊子·讓王篇》：“身在江海之上，心居乎魏闕之下”

16) 張衡《歸田賦》：“超埃尖以遐逝，與世事乎長辭”，“於是仲春令月，時和氣清；.....於焉逍遙，矚以娛情。”

과 자연의 일치를 표현해내었고, 또한 이 즐거움 안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노니는 모습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虞舜이 제조한 五弦琴을 타고, 周公과 孔子의 책을 읽는다고 한 것은,<sup>17)</sup> 여전히 聖賢의 道를 推仰하고 있다는 것을 거론한 것이다. 즉 莊子가 말하는 자연과 사람이 일치를 이루어나간다는 天人合一의 境界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張衡은 당시 儒敎의 가치 기준과 정치 경향, 동시에 정형화 되어 있는 思考에 여전히 의지하는 인격경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讖緯說로 인한 지배계급의 정치부패에 대한 반감을 폭로하였고, 지나치게 정통성만을 강조하는 경학이 자연스런 인성과 개성을 억압하는 것에 대한 모순성의 해결책으로 찾은 것이 《莊子》 思想이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로와 질 수 있는 生命意識과 個性意識에 대한 열망은 끊이질 않았다. 따라서 그가 생각하는 개성의식의 표현으로 自然과 田園生活을 묘사해나갔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표현 방식은, 이후 六朝文人의 隱逸詩·山水詩 觀念의 自覺과 創造性의 思考를 열어 주는 데는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

#### 4. 《莊子》가 張衡 賦에 미친 影向

東漢 中 後期, 張衡은 이른바 儒學의 상당한 영향을 받았지만, 당시 정권과 사회의 혼란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생명의식과 개성의식에 대한 갈구로 그의 성향은 老莊思想으로 기울게 되었다.

張衡의 초기 작품은 《溫泉賦》가 있고, 《二京賦》는 班固의 《兩都賦》를 모

17) 《歸田賦》：“彈五弦之妙指，咏周孔之圖書……陳三皇之軌模。”，參見《全漢賦》：“《禮記·樂記》：‘昔者舜作，五弦之琴。’指：同旨，意趣。妙指美妙的音樂。兩句寫自己追慕虞舜、周孔之道，故彈虞舜所創制的琴，誦讀周孔所著之書。三皇：呂思勉《中國制度史·政本》：“三皇之爲何如人？其繼承之際何如？不可考矣。”或謂天皇、地皇、人皇；或謂燧人、伏羲、神農；或謂伏羲、神農、女媧，傳說不一。”

방하여서 지은 것이다. 《思玄賦》는 楚辭 《遠遊》와 班固의 《幽通賦》를 모방하여 지은 것이다. 《歸田賦》는 漢 大賦로부터 벗어나 抒情小賦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으며, 《應問》·《四秋詩》·《鬪龍賦》 역시 張衡의 비교적 유명한 작품으로, 특히 《四秋詩》는 七言詩의 형태를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模倣하여, 獨創性이 缺乏되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경향은 그 당시의 많은 문인들의 보편적인 추세였다고 할 수 있다.

#### 1) 憂患意識

張衡의 《二京賦》·《思玄賦》는 모두 작가 자신의 感情이 발생하거나, 目的이 있어서 쓴 作品들이다.

《二京賦》는 본래 당시 統治階級の 지나친 奢侈에 대한 現象을 날카롭게 지적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讖緯說의 영향을 받은 上流層社會 및 最高 統治者의 荒唐한 現象에 대해서, 예를 들면 漢武帝의 “求仙食王” “長生不老” 등등에 관한 다방면의 非合理的이고 非科學的인 일에 대해 批判을 다룬 作品이다. 물론, 그가 “夸飾” 手法을 사용하고 “比”의 象徴을 사용하였던 점들로 미루어 볼 때, 文學의 특수성이 虛構와 想像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 당시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讖緯說의 성향이 불리일으키는 근본적인 착오들에 대한 심각성을 폭로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憂患意識의 思惟方式은 《莊子》중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莊子·人間世》에서: “오는 세상 기다릴 수 없고 지나간 세상 따를 수 없다.....사람은 유용의 용도는 알면서 무용의 용도는 모르는 도다.”<sup>18)</sup>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莊子는 “천하가 혼탁하여, 엄중한 말을 할 수가 없네.”<sup>19)</sup> 라고 하는 사회

18) “來世不可待, 往世不可追也! ...人皆知有用之用, 而莫知無用之用也。”

19) 《天下》: “以天下爲沈濁, 不可與庄語”.

현실 앞에서, 더러는 不滿과 反感을, 또 더러는 암울한 현실을 가차 없이 공격하는 批評을 하였다. 그러나 어찌 할 수 없는 사회 현실 앞에서 莊子는 “터무니없는 말, 황당한 말, 끝이 없는 무한한 언어”<sup>20)</sup> 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가 표현 하려는 뜻을 펼쳤다

《思玄賦》에 관하여, 《後漢書·張衡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張衡은 늘 신변의 일을 생각하였는데, 吉凶禍福이란 실로 명백히 밝히기가 어려운 것이므로, 《思玄賦》를 지어, 기슭안의 뜻을 펼치고자 하였다.”<sup>21)</sup> 다시 말해서, 人生의 危機感이 비교적 크고, 內的으로도 憂患意識을 깊이 가져 평정을 찾기 힘든 상태였음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莊子》中에서도 이러한 心理的 表現이 잘 나타나는데, 《人間世》에서의 “福은 날개보다 가볍지만, 이를 거두어 가질 줄 모르고, 禍는 땅보다 무겁지만 그것을 피할 줄을 모르네.”<sup>22)</sup>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楚나라 미치광이 接輿가 孔子가 묵고 있는 집 문 앞을 지나면서 당시의 위태로운 現實을 諷刺한 이야기인데, 莊子의 이러한 憂患意識에 대한 表現을 張衡 또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하겠다.

張衡은 “比”의 象徴을 빌어 詠物이든 說理이든, 사회와 개인적 갈등과 모순을 그대로 표출했다. 예를 들어 《東京賦》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날 貴人집안의 자제들이 눈앞의 안일을 탐내어 되는 대로 살아가니, 백성들의 원망을 복수로 풀 수 있었다는 것을 잇는 구나; 재물을 다 없애 榮辱이 막다르게 하니, 아래 사람들의 반역을 소홀하여 憂患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잇고 있구나.<sup>23)</sup>

張衡의 賦에선 또한 “歌頌”과 “暴露”로 古人들이 말하는 “美”와 “刺”는 모두 똑같이 존재하였으므로, 傳統美學이 치중하고 있었던 “美刺”등의 政治 範圍를 뛰어넘

20) 《天下》：“謬悠之說，荒唐之言，無端崖之辭”

21) “衡常思圖身之事，以爲吉凶倚伏，幽微難明，乃作《思玄賦》以宣寄情志”

22) “福輕於羽，莫之知載，福重於地，莫之知避”

23) “今公子苟好剽民以儒樂，忘民怨之爲仇也；好殫物以窮寵，忽下叛而生仇也。”，參見《全漢賦》，選自《文選》李善本爲底本，以兩五臣本、六臣本，《藝文類聚》卷六一所錄爲校本。

었다고 할 수가 없다. 즉 張衡은 比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그의 우환의식을 표현해냈다고 볼 수 있다.

## 2) 生死觀

한편, 莊子의 인생 이념이 張衡의 生死觀에 영향을 미쳤는데, 괴로움의 解消와 精神的 超越을 追求하고자 시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人生에 있어서 기대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적절한 때를 만나기 어려울 때, 莊子의 삶의 태도는 “때에 편안하고 순리대로 따르면, 슬픔과 즐거움이 들어올 수가 없네.”<sup>24)</sup> 라고 하여,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어떤 것이든,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사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도 슬픔도 內的 平靜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莊子·至樂》에서: “莊子妻死弔之, 莊子則方其踞鼓盆而歌。……”로부터 알 수 있듯이, 莊子의 처가 죽어 죽음을 哀悼할 때에, 莊子가 동이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의 超然한 精神境界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는 生과 死는 한 점 線上에 놓여있는 것과 같다고 보는 立場을 밝히고, 死後세계의 情況을 설명하였다. 莊子는 사람의 生과 死는 봄·여름·가을·겨울의 흐름과 같은 自然現象이라고 느끼고, 그의 理性은 私事로운 情感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뛰어 넘어 平心을 되찾는 精神境界를 追求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莊子가 말하는 “情”은 확실히 자신에게 던져진 상황과 현실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한다. 黃錦鏞은 《莊子與文學》 중에서:

莊子是 感情을 超越하였는데, 감정을 초월한다는 것은 無情하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떠한 개인의 감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지간의 지극한 情, 곧 至情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천지간의 각종 물체에 대해서, 생명이 있든, 생명이 없든 모두 감정을 일으켰다. 무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至情한 것이다.<sup>25)</sup>

24) 《大宗師》: “安時而處順, 哀樂不能入也”

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莊子가 바라보는 “情”에 관한 핵심이라고 본다.

《髑髏賦》中에서도 張衡은 《莊子·至樂》에서 莊子가 해골을 만나는 寓言의 영향을 받아, 張平子(자기 자신)와 해골(莊子)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해골이 말했다: “죽는다는 것은 참된 休息을 말하는 것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고달픈 奴役과 같은 것입니다. 겨울에 물이 꽁꽁 얼어붙은 것이, 어찌 봄날의 얼었다가 풀어지는 물과 같겠으며, 榮耀로운 地位가 있다고 한들 것들보다 가벼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天地를 쉴 수 있는 침대로 삼으며, 천둥과 번개를 흔들리는 시원한 부채로 삼고, 일월을 밝게 비추는 연못으로 삼고, 많은 별들을 진주와 아름다운 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연과 일체를 이루어 無情、無欲하려는 것입니다.....<sup>26)</sup>

상술한 바에서 해골이 말하는 죽음의 세계엔 身分的 差別도, 自然의 變化조차도 없으며, 세상 안에서 겪어야 할 수고로움도 없이 편안하고 즐겁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이 갖고 있는 生死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는 觀點을 보여준 것이다. 그는 조롱하는 어투를 이용하여, 社會矛盾이 극도로 치닫는 시기에 封建 士大夫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反映한 것을 통해, 죽음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삶의 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집착하고 움켜쥐려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얼마나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가를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삶에 대해 집착할 것도 없고 죽음을 두렵게만 바라볼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兩漢시대의 經學家 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樣相이기도 하다.

25) “莊子是超感情的, 超感情不是無情, 也不是對某一個人的感情, 而是對天地間的至情。他對天地之間各種物體, 無論是有生命的, 沒有生命的, 都發生了感情, 所以看似無情, 其實是至情。”

26) “髑髏曰: ‘公子言之殊難也。死爲休息, 生爲役勞。冬冰之凝, 何如春冰之消。榮位在身, 不亦輕圓塵毛?.....以天地爲床褥, 以雷田爲鼓扇, 以日月爲燈燭, 以云漢爲天地, 以星宿爲珠玉。合體自然, 無情無欲。澄之不清, 渾之不濁。不行而至, 不疾而速。’”, 參見《全漢賦》, “本篇以四部叢刊韓元吉本《古文苑》第五卷所錄爲底本, 以守山閣本、《藝文類聚》卷一七、《初學記》卷一四、《太平御覽》卷三七四及漢魏六朝百三家集《張河間集》所錄爲校本, 並參校《文選》李善注。”

## 3) 自然回歸觀

張衡은 《莊子》思想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晩年の 作品인 《歸田賦》에서 田園生活로 돌아 가고자하는 心情을 밝혔고, 表現 方式 또한 점차적으로 抒情化 시키면서 生動的으로 펼쳐나갔다. “세속을 초월하여 떠나가고, 세상과 고별을 하려니” “老子가 남긴 말을 느끼 우고, 은거할 초가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마음이 사물의 밖을 좇는데, 어찌 榮辱을 마음 쓰리오.”<sup>27)</sup> 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作家가 理想으로 두고 있는 生活環境과 그 당시 관료들로부터 억압받는 生活이 강렬한 對比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張衡은 “仲春 2월 아름다운 계절에, 시기적으로 溫和하고 날씨도 清明한데;..... 이리하여 소요하며 잠시 마음을 편안히 하네.”<sup>28)</sup> 라고 하여 景物을 묘사하는 가운데 사람과 自然의 一體를 표현하였고, 자신이 이 境地에서 누리고 있는 즐거움과 기쁜 감정들을 솔직하게 토로하였다. 그러나 賦의 내용 중에서 “彈五弦之妙指, 咏周孔之圖書..... 陳三皇之軌範”이라고 한 것은 성현의 道를 추앙하는 것으로, 여전히 儒家思想의 지배를 받아 근본적으로 인간이 풀 수 없는 時代的 觀念에 대한, 그의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

張衡은 《莊子》의 自然回歸觀과 性向을 받아들였으나, 아직 본래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그 당시 社會文化의 定型화 되어있는 사고와 틀 그리고 士계층의 價値觀 및 信念은 매우 강한 것이어서, 文人들이 어떤 도덕적 가치, 정치적 배경 및 구속으로부터 빠져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經學이 지배적인 시대에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져 오던 조건들을 수용하는 한, 결국 莊子가 말하는 人性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로움을 누리겠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莊子は 《齊物論》에서 말하기를 “天地와 내가 함께 살고, 만물과 내가 하나가

27) 張衡 《歸田賦》：“超埃尖以遐逝，與世事乎長辭”，“感老氏之遺誠，將回駕乎蓬廬。.....苟縈心於物外，安知榮辱之所如。”

28) 《歸田賦》：“於是仲春令月，時和氣清；.....於焉逍遙，曠以娛情。”

된다.”<sup>29)</sup> 고 하였고, 또한 “莊周가 꿈에 나비가 되는지, 나비가 꿈에 장주와 함께 하는 것인지? 莊周와 나비는 반드시 서로 다른 개체이다. 서로 분명히 이름은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을 일러 物化라고 한다.” 고 하였다. 莊子는 自然的現象과 自我의 情感을 否定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天人精神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目的으로 삼고, 자연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을 추구해 나간다. 즉, 여기서 말하는 天人이란, 儒家가 말하는 學說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의 合一을 말하는 것이다.

張衡이 內的으로는 《莊子》의 自然思想을 그대로 받아들였을지라도, 당시 社會 안에 만연해 있던 儒敎的 價値 基準과 時代的 觀念·思考·生活方式과 政治傾向을 묵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당시의 儒敎의 政治的 敎化의 한계성을 뛰어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러한 自然回歸觀과 隱逸의 思考가 당시 정치부패에 대한 반감과 실망이 서로 어우러져 나타난 것이었으며, 精神的·內面的으로 일시적이거나 自然과의 一體를 追求하고 自然과 萬物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갈구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張衡의 田園에 대한 憧憬은, 이후 六朝文人의 隱逸詩·山水詩 觀念의 자각과 創造性의 思考를 열어 주었다고 할 것이다.

#### 4) 審美觀

한편, 일부 兩漢文人은 讖緯說을 비난하는 과정 중에, 지나친 ‘夸飾的手法’을 배제하게 되는데, 이것은 史學 傳統의 영향을 받아 당시 군주나 정치인을 신격화하고자 역사 자체를 지나치게 왜곡시켜 문장을 지었던 것에 비난을 가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劉勰의 《文心雕龍·夸飾》에서는 “文辭所被, 夸飾恒存” 이라고 여겼지만, “夸而有節, 飾而不誣” 해야 한다는 것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夸飾》篇 중에 夸飾手法 사용할 때의 得과 失에 대해서 평론하면서 張衡의 賦에 대해서도

29) “天地與我并生, 而萬物與我爲一”

다음과 같이 비평하였다:

張衡의 《羽獵賦》에서는 水神을 북방의 황야에 유예시키기도 하는데, 저 洛水의 여신 宓妃는 罔兩이 아니고, 一方의 水神도 도깨비가 아닌데 헛되이 사용하여 형체를 어지럽게 한 것은 소홀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외형을 과장하려고 내용을 어그러뜨린 것이다..... 後進의 才士들은 화려한 표현에 있어서는 봄꽃도 그 아름다움에 비길 수 없고, 묘사가 쇠미해지면 추운 계곡의 마른나무가지가 무색할 정도이다. 환희의 묘사에 있어서는 문자도 같이 웃고, 슬픔을 논함에는 음성도 같이 눈물을 흘린다. 진실로 마음속에 쌓이고 맺힌 바를 드러내어, 맹인도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도 놀랄 정도의 효과를 드러낸다. 그 과장이 요점을 얻으면 언어적 표현이 살아나는 것이지만, 적당한 선을 벗어난 지나친 과장에 부자연스러운 양상을 드러나게 된다.<sup>30)</sup>

상술한 바의 내용은, 張衡의 《羽獵賦》가 楚辭的인 神秘主義를 띄고 非現實的이며 迷信的 傾向이 지나친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張衡 賦는 賦의 詩化, 駢偶化의 현상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곧, 人爲的 修飾의 美를 강조하였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張衡의 賦는 이러한 과도기적 과정을 거쳐 晩年의 作品인 《歸田賦》는 내용과 형식을 막론하고 漢賦의 鋪張誇飾과는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清純質樸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張衡이 《莊子》의 思維方式을 받아들여, 創作論과 審美論에까지 융화시켜 나갔다고 할 수 있다.

《莊子》는 藝術 方面에 있어서 “갈고 닦아 자연의 순박함으로 돌아가는 것”<sup>31)</sup>이라는 美學思想을 제시하였다. 그는 “形殘而神全”을 내세우고, “소박하면서도 천하에 아무도 그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다툴 수가 없다”<sup>32)</sup>는 것을 強調함으로써 외

30) “張衡《羽獵》, 因玄冥於朔野。變彼洛神, 既非罔兩; 惟此水師, 亦非魑魅, 而虛用濫形, 不其疎乎!..... 辭入煒燁, 春藻不能程其葩; 言在萎絕, 寒谷未足成其調。談歡則字與笑並, 論感則聲共泣偕, 信可以發蘊而飛滯, 披警而駭聳矣。然飾窮其要, 則心聲鋒起, 夸過其理, 則名實兩乖, 若能酌詩書之曠旨, 翦揚馬之甚泰, 使夸而有節, 飾而不誣, 亦可謂之懿也。”

31) 《山木》: “既雕既琢, 復歸於樸”

재적 형식미에 치중하지 않았다. 따라서 左松超는 莊子の 文學 風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文章本天成, 妙手偶得之”라고 하여 天成적인 문장은 묘한 기술을 쓰고서야 이루어지는 법이다. 妙手란, 彫琢을 가하여도 彫琢을 하였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문장을 다듬어도 다듬었다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는데, 비록 人爲의 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sup>33)</sup>

徐復觀의 《中國藝術精神》中에서는:

莊子が 말하는 道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최고의 藝術精神을 말하는 것이다.....老莊은 당시 귀족문화의 부패로부터 나온 허위, 사치, 가식의 폐단을 바로 잡고, 세속의 경박한 美를 부정하고, 세속의 감각적 즐거움을 부정하였다.....그들은.....“천지에 큰 아름다움이 있으나, 말하지 않는다.”<sup>34)</sup> 라고 하여 “大美”를 깊이 깨우치고 있었다.<sup>35)</sup>

라고 莊子の 심미관을 설명하고 있다. 莊子是 《大宗師》에서 “道”의 大를 묘사하면서: “태극 아래 있어도 높다고 여기지 않고 육극의 아래에 있어서 깊다고 여기질 않는다.”<sup>36)</sup>라고 하여 그가 표현하는 바의 “大”는 무한한 時空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思考는 莊子로 하여금 자연과의 일치를 찾게 만들었고, 따라서 “천지의 아름다움을 근원으로 하여 만물의 이치에 도달한다.”<sup>37)</sup>는 境界를 추구하게 하였다. 인생에 있어서, 세속적 괴로움이나 기쁨으로부터 초월하여야 비로소 인생의 大樂(樂觀)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32) 《天道》: “朴素而天下莫能與之爭美”

33) 左松超: 《莊子與文學》, 《古典文學》第3集, 臺灣學生書局, 民國70年: “‘文章本天成, 妙手偶得志’, 要妙手才能得到。所爲妙手, 是雖然彫琢, 但是看不出彫琢, 雖然鍛鍊, 但是看不出鍛鍊。雖然出之爲, 却是天然。”

34) 《知北遊》: “天地有大美而不言”

35) 徐復觀: 《中國藝術精神》, 《徐復觀先生全集四》, 臺灣學生書局, 1984년

36) “在太極之先而不爲高, 在六極之下而不爲深”

37) 《知北遊》: “原天地之美而達萬物之理”

張衡의 《二京賦》中 “此乃游觀之好”라고 한 것도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이며 낙관적 정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二京》의 題材·立意·結構·規模·場面·思致 등 표현한 것이 正大·廣大·高大·龐大·宏大·遠大를 표현하지 않은 것이 없고, 집중적으로 “大美”의 취향을 숭상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張衡의 樂觀性은 儒家的 요소에 의지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소박하지만 이 세상에 그것과 아름다움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없다.”<sup>38)</sup>는 경지에 이르기란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우주의 방대함을 의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동시에, 자신의 미소함을 철저히 느끼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느끼는 공간의 무한함은 비애감을 동반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張衡의 문장은, 《莊子》의 思想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그 당시 철저히 지배하고 있던 儒家사상의 지배를 받아 근본적으로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莊子是 《齊物論》에서 말하기를 “천지와 내가 함께 살고,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sup>39)</sup>고 하였다. 莊子是 自然의 外的現象과 自我의 情感을 否定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天人精神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람과 자연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을 추구해나간다. 여기서 審美主體와 審美客體의 一致를 추구해가고 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완전히 “物化”의 경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虛靜”의 정신 경계를 거쳐야한다고 여기는데, 이것이 바로 審美觀照라고 할 수 있다. 心境이 절대적으로 고요하고 투명한 경계에 도달하면 “忘我”·“忘知” 하게 되고, 이때는 이미 주체적 존재를 감지할 수가 없고, 완전히 “物化”의 경계에 들어서게 될 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以天合天”, “神化”이다.

한편, 《中國美學史大綱》중에서 葉朗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意境’이란, 바로 自然의 기운과 생동감 있는 情景를 조화시킴으로써 우주적 본체와 生命의 道(氣)를 표현해내는 것이다 .....老莊美學을 떠나서는, ‘意境’의 美學的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다.

38) 《莊子·天下》; “樸素而天下莫能與之爭美”

39) “天地與我并生, 而萬物與我爲一”

賦體는 본래 抒寫情志를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抒情과 體物이 서로 하나로 융합되어서, “神與物游”나 혹은 “景中生情, 情中舍景”의 경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張衡 賦에서도 사람과 자연의 일치를 거론하기는 하지만, 《莊子》 哲理의 深度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漢代에는 “溫柔敦厚”의 儒教 詩教 와 “中和之美”가 審美的 標準이 되었는데, “中和” 觀念과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곧 美의 標準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儒家의 學說이 중국 봉건사회의 正統 文學觀念과 美學觀念에 영향을 미쳤고, 官方美學의 이론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張衡이 정통 미학관의 속박을 뛰어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는 사실은, 이후 文學的·美學的 思考와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4. 結 語

상술한 바의 고찰을 통하여, 《莊子》와 張衡 賦의 文學風格의 차이를 발견 할 수가 있었다. 張衡은 《莊子》 思想의 영향을 받아 그 당시 일대 變革期로 들어서게 된다. 따라서 부는 “詩化”하는 추세로 나타나게 되고, 張衡 賦는 특색 있는 個性과 개인의 感情에 치중하며 동시에 自我의 개념을 強化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봉건사회의 환경 하에서 여전히 봉건 윤리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곧 張衡은 《莊子》의 영향으로 賦의 창작 중에 사람과 자연의 일체를 추구해나가지만, 창작 과정 중, 그 당시 漢代의 문학의 구조적인 變換 및 轉換은 이루어 나가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意義는 魏晉人의 文藝 創作 실천이 創造的 思考와 探索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겠다.

첫째, 張衡 賦는 刑象의 比喻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을 표현해냈다. 《莊子》에서는 “터무니없는 말, 황당한 말, 끝이 없는 무한한 언어.”(《天下》)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표현하였는데, 張衡은 《莊子》의 이러한 영향을 받아 그 당시 사회에 대한 憂患意識을 표현하였다.

둘째, 張衡이 經學、神學의 속박으로부터 독립해 나온 것은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 讖緯說의 非科學的이고 非現實的인 思想에 대한 객관적 대항을 표현해낸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科學的 思惟 方式 또한 莊子의 영향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張衡은 기본적으로 駢體의 賦를 창조해갔는데, 審美的 趣向으로 화려한 雕飾을 여전히 좋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兩漢 시대에 유행한 浮薄한 美에 대해서는 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莊子》의 思想·個性意識·文學性·審美觀 등의 영향을 받아, 賦의 가운데 인간의 내면적으로 흘러나오는 性情·感情 요소를 소홀히 하는 것을 뛰어넘고자 시도했고, 궁극적으로 자연의 일체 즉 自然의 美와 萬物의 理致를 하나로 조화시키고자 시도했다. 張衡 賦는 그러한 시도의 표현 방법으로서 自然과 田園生活을 묘사해나갔는데, 이후의 隱逸詩·山水詩에 대한 創意性을 열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 黃錦鉉, 《莊子讀本》, 臺灣三民書局, 1981年  
劉勰, 詹鍇義註, 《文心雕龍義註》, 上海古籍出版社, 1999年  
葛兆光, 《中國思想史》第一卷, 復旦大學出版社, 2002年  
徐復觀, 《兩漢思想史》, 《徐復觀先生全集》, 臺灣中和堂, 1985年  
陳鼓應, 《老莊新論》, 上海古籍出版社, 1997年  
李生龍, 《道家及其對文學的影響》, 岳麓書社, 1996年  
趙明、楊樹增, 曲得來主編, 《兩漢大文學史》, 吉林大學出版社, 1998年  
於迎春, 《漢代文人與漢代文學觀念的演進》, 東方出版社, 1997年  
劉松來, 《兩漢經學與中國文學》, 百花洲文藝出版社, 1997年  
徐復觀, 《中國藝術精神》, 《徐復觀先生全集》, 臺灣中和堂, 1985年  
葉朗, 《中國美學史大綱》, 上海人民出版社, 1998年  
金學主, 《漢代的 文人和 詩》(한신아사, 2003年  
彭亞非, 《先秦審美觀念研究》, 語文出版社, 1996年  
陳望衡, 《中國古典美學史》, 湖南教六出版社, 1999年  
費振剛, 胡双寶輯校, 《全漢賦》, 1998年  
馬積高, 《賦史》, 古籍出版社, 1997年  
劉斯翰, 《漢賦:唯美文學之潮》, 光州文化出版社, 1989年

《中文提要》

漢武帝“罷黜百家,獨尊儒術”後,董仲舒認爲人君受命於天,進行統治。

在漢代,儘管儒學和經學,但賦家能不知不覺地突破這種正統觀念的束縛,既從現實中接受着時代精神的要求,開始由功利而轉向一己生命的趣向,以開括自己的境界。《莊子》思想在漢代是作爲儒家的對立面而出現的。莊子超越現實的思想與漢代文人試圖突破儒教局限的精神狀態相當契合。

東漢末,張衡的思想內容乃多受儒學的影響,但由於讖緯說、政治的腐敗,他的個性傾向於老

莊。《莊子》的言論的確很少直接談到文論，但它的文章影響了張衡，對他有了啓發。張衡賦進入一個大的變革期。因此本論文探討了《莊子》與張衡的個性意識、憂患意識。探討的是《莊子》在對張衡賦創作的影響，理解《莊子》與張衡賦的生死觀、自然觀、審美觀。張衡吸收《莊子》的某些成分，在創作中開拓自己的境界，但還不達到莊子的大而無當的空想，正是現實的問題。社會文化格局和士階層的價值模式非常強大，文人不容易從道德、政治之間的拘束中擺脫出來。

張衡賦從如下的意義確能啓迪魏晉人的文藝創作實踐進行創造性的思考。

第一，張衡賦通過形象的比喻，表現是以批評現實爲主的。

第二，他從經學、神學的束縛中獨立出來具有重要意義。在當時，即表現爲對“讖緯說”之類的客觀積對抗。

第三，他在審美情趣上，還是喜好華麗彫琢，但是從兩漢時代流行的浮薄之美改主意。他受《莊子》思想、審美觀的影響，開始嘗試突破賦中性情的感情因素被忽略。他漸漸接受素朴之美，試圖體現出自然的一體，注重個人的感情，強化自我的概念。

主題語：莊子，張衡 賦，讖緯說，個性意識，  
憂患意識，生死觀，自然回歸觀，審美觀